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카페건축에 관한 연구

김정일¹, 김형준^{2*}

¹건축사사무소 지맥 대표 건축사, ²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 Study on the Cafe Architectur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Jeongil Kim¹, Hyoungjun Kim^{2*}

¹CEO Architect, GimC Architectural Firm

²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카페 중 제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한 카페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카페가 차별성과 고유성을 확보하여 나름의 경쟁력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에서 카페를 창업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또한 카페 건축에 적용된 제주 고유의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을 이해하는 학술적 기반과 적용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연구는 문헌분석과 현장답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카페에서 적용된 제주지역의 특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현상적 물성의 반영이다. 이는 제주의 현무암 등 독특한 건축재료, 형태, 지붕 등 기존 건물의 물리적 요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의 해석적 일상의 반영이다. 이는 제주 옛집의 배치, 일상소품 등을 카페에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의 서사적 시간성의 반영이다. 이는 기존 건물이 가진 역사적 사건과 이야기, 시간 등이 누적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에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카페를 창업할 경우, 위의 세 가지 특성을 융합하여 구축한다면 매우 특성 있는 카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제주, 카페, 창업, 물성, 일상성, 시간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cafe built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among the cafes in Jeju. This is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prospective prep entrepreneurs who want to start a cafe in Jeju. The caf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maintains its own competitiveness and constant interest of tourists by securing differentiation and uniqueness. In addition, by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Jeju applied to cafe architecture, the academic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Jeju and applicable characteristics of Jeju were summarized. The study was conducted in parallel with literature analysis and on-site analysis, and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tents were found. First, it is a reflection of Jeju's phenomenal materiality. Second, it is a reflection of Jeju's interpretive everyday life. Third, it is a reflection of Jeju's materiality time. In this regard, if prep entrepreneurs start a caf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Jeju, they can create a cafe with very specific characteristics if they integrate the three characteristics above.

Key Words : Jeju, Cafe, Start-up, Materiality, Everyday life, Tim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20 scientific promotion program funded by Je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youngjun Kim(kimhj@jejunu.ac.kr)

Received May 3, 2021

Revised May 28, 2021

Accepted June 20,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제주는 최근 10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를 겪었다. 제주의 인구수는 2010년 57만 여 명에서 2020년 69만 여 명으로 12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전입요인이 가장 컸다[1]. 외부 전입은 제주가 살기 좋은 곳, 살아보고 싶은 곳 등으로 전파한 미디어의 영향, 유명인과 연예인들의 제주 생활 노출, 제주에서 한달 살기의 유행,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올레길 걷기 등이 번지면서 도외 일반인들에게 제주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긴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입 인구의 증가로 제주는 부동산 가격 급등, 차량 증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교통체증,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었다. 제주의 산업기반은 감귤재배를 중심으로 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3차 서비스업이 주요 기반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외부의 사람들이 제주에 이주해서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주민들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창업에 몰려들었고, 이는 과밀화,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 현재는 경쟁에 밀린 이주민들이 다시 도외로 진출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포화된 제주지역 카페 중 제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한 카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카페가 과포화된 제주지역 카페와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확보하여 나름의 경쟁력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에서 카페를 창업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또한 카페 건축에 적용된 제주 고유의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을 이해하는 학술적 기반도 제시하고, 현대건축에서 적용가능한 제주의 특성들도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창업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제주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제주적인 카페의 구현방법도 제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카페에 적용된 제주의 고유한 특성들은 건축의 지역성 구축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융합적인 학술적 가치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제주지역의 카페 중 제주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카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주다운 건축상'에 선정된 제주건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주다운 건축상'은 제주지역 건축물 중에 건축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고, 제주의 속살 같은 건축물을 알리고 문화 자원화하기 위해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에서 건축작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2019년도부터는 제주다운의 정의에 변용의 의미를 더해서 오래된 시간성과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였다. 2014년 제주7373, 2015년 상호주택, 2016년 중선농원, 2017년 스톤하우스, 2018년 조천정미소, 2019년 다랑쉬 카페, 2020년 감저 카페가 수상작이다[2]. 본 연구는 '제주다운 건축상' 수상작품 중 카페건축과 관련된 세 개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카페건축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Jeju Cafe Architecture of Study

Subject of Study	Location	Award Year
Joongsun Nongwon	Jeju-si wolpyung	2016
Darangsui	Jeju-si Yongdam	2019
Gamjeo	Seogwipo-si Daejung	2020

제주시 월평리에 위치한 중선농원은 제주의 특산물인 귤을 재배하던 농장이었다. Fig. 1과 같이 이 농원 안에 있는 귤창고 등을 리모델링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도서관 등을 만들었다. 큰 창고는 갤러리, 작은 창고는 카페, 부속건물은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기존 주택은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였다[3]. 건축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여 제주 귤창고의 고유한 특징들이 담기도록 하였다.



Fig. 1 Vista of Joongsun Nongwon in Jeju-si wolpyung

다량쉬 카페는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택이 있던 대지에 신축한 카페이다. 기존 주택의 가족인 자신이 건축가로서 설계하였으며, 건축가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카페로 만들면서, 조상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와 일상을 카페에 담았다[4]. 그래서 이 카페에는 제주민의 삶과 일상, 역사와 문화가 가족들의 흔적을 통해 카페 곳곳에 담겨있다.

감저 카페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하고 있다. 감저는 고구마의 제주 방언이다. 이곳은 고구마를 이용하여 전분을 만들던 전분공장이었다. 이를 갤러리와 카페로 만들면서 감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기존 전분공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과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다[5].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제주다운 건축상’ 수상작인 중선농원, 다량쉬 카페, 감저 카페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특성이 카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수상작품의 선정사유와 건축가의 건축컨셉에 대해 문헌과 도면을 통해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건축물의 구축방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카페에 반영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3. 제주특성을 반영한 카페건축

3.1 중선농원의 구축방식과 제주특성

임금님의 진상품이었던 곶은 제주의 오랜 역사와 함께 제주민의 삶의 일부였다. 조선시대를 지나 근대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의 곶은 제주의 주생산물이자 제주경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듯 제주에 있어서 곶은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 문화이자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수확된 곶은 산도가 강하다. 이 산도를 낮추기 위해 수확된 곶은 창고에서 일정시간 보관된 후 출하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주의 곳곳에서는 곶창고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제주의 오래된 곶창고는 제주적인 검은 현무암을 재료로 쌓으면서 그 사이를 시멘트 몰탈(Cement Mortar)로 채워 짓는다. 검은 현무암은 화산섬염 제주 고유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현무암으로 만든 곶창고는 단순하고 흔하지만, 제주 고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곶창고는 지역건축계의 큰 관심이 아

니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의해 많은 카페가 만들어졌고, 카페의 건축 비용 절감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곶창고를 구입하여 카페로 리모델링하면서, 곶창고 카페는 제주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중선농원의 곶창고 카페도 이러한 흐름 속에 구축된 카페이다.



Fig. 2 Cafe of Joongsun Nongwon, Exterior and Interior

중선농원의 경우, 카페, 갤러리, 도서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복합시설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건물 용도는 다르지만, 건축적 특성은 과거 건축물의 형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리모델링하여 제주 고유의 물성을 담았다. Fig. 2와 같이 카페의 경우, 현무암에 시멘트 몰탈을 채워 만든 창고 벽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 창고의 박공지붕 형식과 물매도 유지하여, 외부 형태와 재료에서 시각과 촉각을 통해 현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주의 물성을 반영하였다. 내부에서는 목조 박공지붕틀을 노출시켜 목재의 따뜻함과 높은 층고를 확보하면서, 과거 곶창고의 물성으로 카페의 공간감을 극대화하였다.

3.2 다량쉬 카페의 구축방식과 제주특성

다량쉬 카페는 제주공항이 인접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주거지역이었으며, 카페 이전에는 제주의 오랜 주거 양식을 가진 주택이 있었던 곳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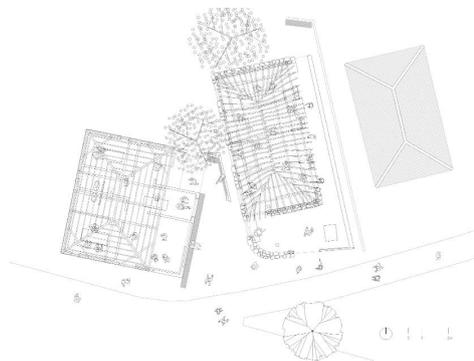


Fig. 3 Layout of old house, 2018

두 채의 주거에 두 세대가 사는 방식을 제주에서는 두거리집이라 한다. 제주전통주거양식인 두거리집의 특징은 ‘안거리’라 불리는 한 채는 부모세대가 살고, ‘밖거리’라 불리는 다른 한 채는 자녀세대가 살다가, 이후 자녀가 결혼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로 채를 바꾸어 사는 것이다[7].

Fig. 3과 같이 다량쉬 카페는 제주전통주거양식인 두거리집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거리 집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페를 신축하였다. 그 이유는 이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가족들의 이야기와 일상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건축에 담고자 했던 건축가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본인이 5살까지 지내고 할머니가 사셨던 안채를 감싸 안은 의도한 투박함인지 모르지만 과거 건물과 어울리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다. 건물 중앙에 놓인 안채의 노출된 서까래를 올려다 보면 거친 슬래브 따라 형성된 긴 창을 통해 아버지가 지은 블록집이 보이고 그 사이마당에 이전부터 있어온 감나무의 감이 건물 창에 그림처럼 달려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의 애환이 녹아든 기존 건물 두 채 사이 본인이 어릴적 뛰어놀았던 외부공간 틈새로 어울리게 들어왔은 새로 지은 건물은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이어줄 중재자로서 새로운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적 방법을 제시했다[8].

다량쉬 카페도 증선농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벽체와 재료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제주만의 건축재료인 거친 현무암, 거센 바람에 순응했던 박공지붕과 지붕의 물매 등 제주의 현상적인 물성의 반영을 증선농원과 다량쉬 카페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다[9].

다량쉬 카페는 제주의 현상적 물성의 반영 외에 제주의 역사문화 등의 가치적 특성이 보인다[10]. 그것은 과거 가족의 일상, 즉 제주민의 삶과 일상을 카페에 반영한 것이다. 제주전통주거양식인 두거리집의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여 집이 간직한 과거의 기억과 일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오래된 집의 지붕틀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여 카페가 과거 집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훼손이 심한 지붕틀을 존치하기 위해 Fig. 4, Fig. 5와 같이 기존 지붕틀과 분리하여 그 위에 콘크리트 지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의 지붕틀을 유지시켰다. 또한 노출된 기존 목재 지붕틀을 보존하고, 지붕틀의 오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지붕틀 외부

는 유리 입면으로 감싸 보호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구축 방식은 이 카페가 제주의 옛집이라는 가치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제주민의 일상을 인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11].



Fig. 4 Front view of Darangsui cafe



Fig. 5 New roof and old roof frame of Darangsui cafe



Fig. 6 Interior of Darangsui cafe

제주의 문화를 담은 일상의 해석은 Fig. 6과 같이 카페 내부의 테이블, 의자, 장식품을 옛집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사용했던 생활물품을 재활용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은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제주민의 일상과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량쉬 카페는 제주의 해석적 일상성이 반영된 카페로 볼 수 있다[12].

3.3 감저 카페의 구축방식과 제주특성

1960년대 제주에서는 봄에 보리, 가을에 고구마인 감저를 주로 경작하였다. 10월에 수확한 감저는 길이 1.5 미터의 감저늘에 보관하여 겨울 동안 식량으로 사용하고 여분의 감저는 전분을 가공하는 공장에 팔아 놓기 농촌의 소득이 되었다. 당시 제주의 전분공장들은 바닷가 인근의 마을에 들어섰고, 제주도 전역에 수십 개의 전분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1960년대 전분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것이 감저 카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저 카페도 기존의 건축 형태와 재료를 현상적으로 반영하여 구축한 카페이다. 감저 카페의 경우, 초기에는 제주의 거친 현무암을 쌓고 그 사이를 시멘트 몰탈로 채워 축조했다. 그 후 태풍으로 공장 일부가 소실되자 이 부분을 시멘트블록을 옆으로 눕혀 쌓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축조의 변화와 시간의 누적은 카페로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Fig. 7과 같이 감저 카페는 초기 현무암 벽과 태풍 이후 시멘트블록 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서사적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Fig. 7 Front view of Gamjeo cafe



Fig. 8 Old(right) and New(left) of Gamjeo cafe

이러한 서사적 시간의 반영은 Fig. 8과 같이 과거와 현재의 건축을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감저 카페는 경제여건이 변화되면서 1980년대 폐업한다. 그 후 30년간 방치되었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건축주가 되면서 2018년 리모델링되었다.

건물의 외관을 뒤덮고 있는 담쟁이넝쿨은 이 건축물이 보내온 시간을 말해주고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와 공존하며 현재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이러한 시간성은

건축 재료의 물성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과거의 기록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이어지는 건축의 시간성이 하나의 지역성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제주다움으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13].



Fig. 9 Interior of Gamjeo cafe

전분공장 폐업시 있었던 담쟁이넝쿨은 이제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담쟁이넝쿨이 가득한 외벽과 Fig. 9와 같이 내부의 전분공장 목재 지붕틀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서사적 시간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감저 카페는 과거 전분공장의 시간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서사적 시간성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제주만의 시간풍경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한다[14].

4. 결론

중선농원, 다량쉬 카페, 감저 카페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연구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개별적 반영된 특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 카페에 반영된 특성을 개념화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주의 현상적 물성의 반영이다. 이는 제주만의 독특한 건축 재료인 거친 현무암을 사용하고, 기존의 건물형태, 벽체, 지붕형태와 물매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제주의 해석적 일상의 반영이다. 제주 옛집의 배치나 집의 구조를 반영하고, 제주민의 일상이 담긴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여 제주의 옛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셋째, 제주의 서사적 시간성의 반영이다. 기존 건축

물이 가지고 있던 서사적 이야기, 과거로부터 이어진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은 그대로 존치하거나 변용하여 건물의 가진 누적된 시간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카페에 반영된 제주지역 특성은 현상적 물성, 해석적 일상, 서사적 시간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주의 현상적 물성의 반영은 위의 연구대상이나 다른 카페의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석적 일상이나 서사적 시간성은 일부 카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지역에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카페를 창업할 경우, 위의 세 가지 특성을 융합하여 구축한다면 매우 특성 있는 카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카페 건축의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점에서 카페의 역할과 관련된 부대기능의 활용과 제주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REFERENCES

- [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Social Indicators of Jeju 2020, Policy Planning Off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2]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eju Branch. (2020). (Online). <http://www.ajeju.co.kr>
- [3]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eju Branch. (2016). *Exhibition Panel of Joongsun Nongwon*.
- [4]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eju Branch. (2019). *Exhibition Panel of Darangsui cafe*.
- [5]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eju Branch. (2020). *Exhibition Panel of Gamjeo cafe*.
- [6] Creative Research Institute. (2013). *Survey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Jeju Old Town*. NPO of Creative Research Institute.
- [7] H. J. Kim. (2012). A Study on the Polyvalence of Jeju Traditional Housing.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1), 17-24.
- [8] Committee of Jeju Architecture award. (2019). Review of Darangsui caf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eju Branch*. 1.
- [9] H. J. Kim. (2018). A Study on the Realization Method of Locality about Jeju Contemporary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46-51.
DOI : 10.5762/KAIS.2018.19.3.46
- [10] H. J. Kim. (2016).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Locality about Itami Jun's Architecture in Jeju.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2), 29-36.
- [11] H. J. Kim. (2016).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Locality about Ando Tadao Architecture in Jeju.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6), 13-20.
- [12] H. J. Kim & S. H. Lee. (2020). A Study on the Locality of Jeju Cultural Architecture.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3), 55-61.
- [13] Committee of Jeju Architecture award. (2020). Review of Gamjeo caf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Jeju Branch*. 1.
- [14] H. J. Kim. (2011). *Rethinking Jeju Architecture*. Kyungmoonsa.

김 정 일(Jeongil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축사사무소 지맥 대표/건축사
- 관심분야 : 건축설계, 환경디자인, 제주건축, 건축융합공간디자인
- E-Mail : auelarch@naver.com

김 형 준(Hyoungju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건축사, 건축이론, 건축설계, 제주건축, 건축융합교육
- E-Mail : kimhj@jejunu.ac.kr